

## 미국내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실태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rket Substitutes for Housework in the United States

부산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鄭 順 姬

*Dept. of Home Management*

*Busan Women's University*

*Instructor : Soon Hee Joung*

#### 목 차

I. 서 론

II. 문헌고찰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논의

V. 요약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1) To estimate the amounts of differences in service expenditures resulting from the effects of mother's marital and employment status.
- 2)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variables to expenditures for time-saving durables and services.

Data were taken from the 1988~1989 Consumer Expenditure Survey. The sample consisted of 2,126 families with 334 single-mother families and 1,792 married-mother families. Tobit regression analyses were used to test for variables related to expenditures for (a) food away from home, (b) clothing care, (c) child care, (d) domestic services, and (e) total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 1) The percentage difference from non-employed married-mother families was higher for employed single-mother families than for other types of families, indicating the positive effect on expenditures on market substitutes of mother's marital and employment status.
- 2) The father's wage rate was associated only with expenditures for domestic services.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family nonlabor income and domestic services. Total

family incom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expenditures for all dependent variables. There wa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xpenditures for child care and age of mother squared. Mother's education was associated with expenditures in all categories. Families of nonwhite spent less on time-saving durables, food away from home, and total services and spent more on apparel services than families of white mothers. The presence of young child was positively related to total services and child care services and negatively related to food away from home.

## I.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전체가족인구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양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0년의 40%로부터 1990년에 26%로 1970년대 이래 상당히 감소했다. 반면에 편모가족의 비율은 1970년대에 10.9%에서 1990년에 16.9%로 증가되었다(미국 조사통계국, 1991). 이런 현저한 증가율은 편모가족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차 증가시켜왔는데, 여가장가족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갖는 관심의 대부분은 이들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들로부터 야기되며, 이 문제들의 기본은 여가장가족이 빈곤의 측정방법에 불문하고 모든 인구통계학적 집단 중 가장 빈곤하다는 사실이다.

편모는 가족의 경제적 복지를 홀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혼모보다 시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다. 즉, 편모는 가사노동의 주요 책임을 안고 있는 동시에 취업의 요구를 떠맡게 된다. 1989년 기혼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56%였던 것에 비해 편모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70% 이상이었다(미국인구조사국, 1990).

가정노동에서 시장노동으로 이동한 모의 작업 노력은 부분적으로 가족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나(가령, 1991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의하면 취업 기혼모가족은 \$46,777의 평균소득을 가지며 반면에 비취업 기혼모가족은 \$30,265의 평균소득을 가졌다.), 동시에 가정생산 투입시간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다. 가정생산에 관한 연구들은 비취

업기혼모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사에 보내는 반면에 취업편모는 가사에 가장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보고했다(Sanik Maudlin, 1986).

그러나 만약 편모와 기혼모가 처한 모두 상황이 동일하다면, 편모에게 요구되는 가사노동량은 기혼모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편모는 그녀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할 때 대신 가사노동을 해줄 수 있는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작업수행에 있어 융통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편모에게 요구되는 지나친 역할과중은 편모의 취업시 가속화되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취업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모에게 직장에서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시간부족을 일으키며, 특히 시간활용에 있어 융통성이 없는 편모의 취업은 기혼모의 취업보다 더 큰 시간압박을 느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취업편모는 취업기혼모보다 시간부족의 해소방침으로 자신의 가정생산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유급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더 많이 증가시키리라는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에 따라 시장대체 지출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는 전혀 없으며, 현재로서는 미국내 전체가족 중 편모가 차지하는 비율과 모의 취업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가 가정의 특정지출영역인 서비스 지출범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하겠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의 결혼과 취업상태의 효과로 인해 야기 되는 시간절약 서비스지출에 있어서의 차이량을 측정한다.

2) 시간절약 서비스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규명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가 갖는 중요한 가정 중의 하나는 여러 가족에게 요구되는 가사노동의 질과 양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압박문제를 경험하는 일부 가족들은 가사노동을 시장재로 대체하기보다는 가사노동의 질을 낮추거나 특정 가정생산물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비자지출조사 자료는 가정생산물의 질이나 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질과 양의 일정불변성이 불가피하게 가정되었다.

시장대체제에 대한 지출은 시장대체제의 가격이 공급지까지의 거리차로 인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문화, 생활방식 및 기타요인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다(Johar Sandhu, 1982). 그러나 시골에 사는 표본가족에 대해서는 지역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지역변수가 제외되었다.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만한 또하나의 제한점은 횡단적자료 분석시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코호트효과이다. 시장대체제에 대한 지출량은 모의 연령뿐만 아니라 모가 가치와 기호를 형성한 기간이 언제였는가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에 대한 시장대체제의 구매가 어렵고 일상적이지 않은 시기에 성장한 모는 시장대체가 좀 더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시기에 성장한 모에 비하여 모의 가사노동에 대해 훨씬 더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며, 이는 시장서비스 지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횡단적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코호트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II. 문헌고찰

선행연구는 사용한 표본유형에 따라 크게 두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부가족을 표본으로 시장서비스 지출과 주부<sup>1)</sup>의 취업상태 및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와 모의 결혼상태를 고려하여 편모집단의 일반적 지출행동을 분석한 연구이다.

### 1. 시장서비스 지출과 주부의 취업 및 관련변수간 관계에 대한 연구

Redman(1980)은 주부의 시간분배와 외식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취업 주부가정이 비취업 주부가정보다 의식에 더 많이 지출하지는 않으며, 가족크기, 주부의 연령, 6세이하의 미취학 자녀유무 및 주부의 연령은 외식지출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가족소득, 대도시에 사는 경우 및 자녀의 연령은 외식지출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Nichols와 Fox(1983)은 주부의 취업이 아침, 점심 및 저녁외식과 정적인 관계가 있으나 자녀관리 서비스 구매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러나 주부의 직업층에 따라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즉 상층직업을 가진 주부는 하층직업을 가진 주부보다 자녀관리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했다. 또한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점심 및 저녁외식을 더 많이 구매했다.

Bellante와 Foster(1984)의 연구는 서비스 지출과 주부의 취업 및 사회경제적 변수와의 관계를 조사한 전형적인 예이다. 시간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는 자녀관리 서비스범주에서만 지출액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으며, 주부의 취업상태와 의복관리, 가내관리 및 사적관리 서비스 지출은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어린자녀의 유무, 주부의 인종, 주부의 연령, 주택소유상태 및 가족소득은

1) 대부분의 선행연구 표본이 자녀의 유무와는 관계 없이 부부가족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모"라는 용어대신에 "주부"라는 용어가 부부가족내 기혼모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다. 따라서 선행연구의 고찰시 주부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진다.

의식, 의복관리, 가내관리, 사적관리 서비스 지출에 있어서의 변이를 확인하는데 유의한 변수들로 나타났다.

Yang과 Magrabi(1989)는 모든 서비스범주에 대한 지출과 주부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또 납세후 가족소득은 자녀관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와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어린 자녀의 존재, 유색인종 및 도시거주는 식당에서의 식사지출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 자녀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가정크기, 주부취업 및 어린 자녀의 존재와 정적으로 관련되고, 45세~54세 사이의 주부연령과는 부적으로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Dardis, Soberon-Ferrer, 그리고 Tsay(1989)는 주부의 임금율, 남편의 임금율, 불로소득, 주부와 남편의 고용된 시간수, 6세이하 어린 자녀의 존재, 가족크기,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의 연령(35~54세) 및 도시거주에 따라 서비스 지출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불로소득은 자녀관리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범주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고했다.

## 2. 모의 결혼상태와 지출패턴

현실적으로 모의 결혼상태가 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편모가족의 일반적인 지출행동을 아는 것은 시간절약 서비스 지출에 관한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추론하도록 해준다. 다시 말하면, 제한된 예산조건하에서 편모가족의 소득이 주요 예산요소(예컨대, 의·식·주·교통)간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안다면, 이로부터 시간절약 서비스 지출을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예산요소의 소비패턴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부분에서는 편모가족과 기혼모가족간 일반 지출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를 조사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DwWeese(1989)는 모의 결혼상태와 의복지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모의 결혼 상태 그 자체는 의복지출의 중요한 결정변수가 되지 못하나, 총지출액과 결합해서는 모와 여아의 의복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발견했으며,

편모가족이 기혼모가족보다 더 높은 의복 한계소비성향을 가진다고 보고했다: 총지출액의 증가는 기혼모가족보다 편모가족에 비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식비와 주거비 지출의 경우, 편모가족의 평균은 기혼모가족보다 자녀관리에 소득 중 더 많은 비율을 소비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Schwenk, 1989). 편모가족의 서비스 지출이나 편모가족과 기혼모가족간 서비스 지출차에 대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선행연구의 고찰은 모의 결혼상태가 지출행동변이의 원인이며 미래 소비패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자 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미국 노동통계국의 공용 tape file인 1988~1989년의 소비자지출조사로부터 추출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1979년 10월부터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요지출항목,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가계특성 및 소득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해준다. 1988~1989년 조사는 두개의 독립적인 부분, 즉 면접조사와 일지조사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조사 자료만이 사용되었는데, 이 면접조사는 각 소비자단위가 5개의 연속적인 분기에서 3달에 한번씩 면접조사된 분기별 패널조사이다.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조사를 위해, 분기마다 표본중 약 20% 정도가 누락되고 같은 숫자의 새로운 소비자단위가 추가되었다(미국 노동통계국, 1991, p.3). 미국 노동통계국에서의 "소비자단위"는 소득을 함께 추렴하고 주요 지출항목에 대해 공동자금을 내면서 통상 함께 사는 두명 이상의 사람들이거나, 또는 어떤 가족 집단과 재정적으로 무관한 단독 소비자로서 정의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분석대상은 미국 노동통계국의 정의에 따라 함께 거주하면서 출생, 결혼 및 양자관계로 연결된 두명 이상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제한하였다. 각 가족에 있어, 참고인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먼

저 언급되는 사람이다(미국 인구조사국, 1990, p. 137).

## 2. 표본 구조

본 연구를 위해 두 표본이 선정되었다. 하나는 편모가족이고 다른 하나는 기혼모가족이다. 사회경제적 변수의 변이를 통제하기 위해, 두 표본에서의 가족은 17세이하 자녀가 최소한 1명있고, 부모와 친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모가 65세 미만인 가족으로만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은 매해 4분기 모두의 자료가 이용가능하여 4분기 각각의 지출을 합함으로써 연간 총지출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족으로만 제한하였다.

## 3. 변수

###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특정 서비스 지출범주에 대한 연간 지출액이다. 시간절약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연속변수로 사용되며, 시장서비스의 다섯 가지 지출범주는 외식, 자녀 관리, 의복관리, 가내관리 및 이들 4개 범주에 대한 지출합이다. 4개 서비스범주에 대한 지출합은 총서비스를 나타내는 대용변수로 사용된다.

### 2) 독립변수

(1) 부(모)의 취업상태 : 이분척도로 사용된다. 만약 부(모)가 취업경험이 있다면, 그(그녀)는 취업부(취업모)로 간주되며, 비취업부(비취업모) 가족이 기준집단으로 사용된다.

(2) 모의 결혼상태 : 본 연구에서 시장시간 변수와 함께 모의 결혼상태는 이용가능한 총가족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모의 결혼상태는 가사노동에 이용할 수 있는 총가족시간의 대용변수가 된다. 모의 결혼상태는 가변수로 사용된다. 편모는 미망인, 이혼녀, 별거인, 혹은 미혼모로서 친자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며, 기혼모는 현재 결혼을 유지하면서 친자와 함께 사는 여성이다. 기혼모 가족이 기준집단으로 사용된다.

(3) 모의 결혼상태와 취업상태간의 상호작용 : 미국의 인구통계국(1991)에 따르면, 편모는 기혼모보다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1989년에

각각 70%와 56%) (미국 인구조사국, 1990). 이것은 결혼상태가 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취업상태가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의존함을 시사하기 때문에, 결혼상태와 취업상태간 상호작용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어진다.

(4) 모의 결혼상태와 가족소득의 상호작용 : 미국의 인구통계국(1991)에 따르면, 편모가족의 소득은 기혼모가족의 소득액인 \$16,932였다(미국 인구조사국, 1991). 따라서 모의 결혼상태가 지출에 미치는 소득의 영향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모의 결혼상태와 가족소득의 상호작용 변수의 포함은 모의 결혼상태와 지출간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5) 부(모)의 임금율 : 그(그녀)의 연간 근로소득을 연간 작업시간으로 나눔에 의해 측정되어진다. 연간 근로소득은 지난 12개월동안 세금공제 전에 수령한 임금과 봉급소득 및 농사 이외의 작업으로부터 얻은 근로소득의 합이다. 만약 부(모)가 취업경험이 없다고 보고하면, 부(모)가 0의 임금율을 갖는 것으로 처리했다.

(6) 불로소득 : 지난 12개월동안 세금 징수전에 수령한 근로소득 이외의 가족소득으로 측정된다.

(7) 총가족소득 : 지난 12개월동안 모든 출처로부터 오는 소득으로 규정되며 연속변수로 사용된다.

(8) 가족크기 : 면접시 소비자단위내에서 통상 거주하는 구성원의 수이다.

(9) 모의 교육수준 : 모가 마친 최고학력으로 계산된다.

(10) 모의 연령과 모의 연령제곱 : 많은 선행연구(Arndt, 1979 ; Bryant, 1988 ; DeWeese, 1989)는 연령과 지출간에 비선형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U자형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모의 연령이외에도 연령제곱이 연속변수로 사용된다.

(11) 모의 인종 : 모의 인종은 백인과 유색인종이라는 두 집단으로 기록되어 가변수로 사용된다. 유색인종은 흑인, 미국 원주민, 아시아인 혹은 태평양 연안의 섬주민 및 기타를 포함하며, 백인이

기준집단으로 사용된다

(12) 어린자녀의 존재 : 가족내 2세이하 자녀의 유부여부로서 두 집단으로 분리되며, 2세 이하의 어린자녀가 없는 가족이 기준집단으로 사용된다.

(13) 주택소유상태 : 저당잡힌 집을 소유한 가족, 저당없이 집을 소유한 가족 및 전세집을 소유한 가족의 세범주로 나뉘어지며, 저당잡힌 집을 소유한 가족이 기준집단으로 사용된다.

#### 4. 분석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가 야기하는 가족지출에 있어서의 차이를 측정하고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tobit 통계분석 방법이 사용되었다. Tobit 분석은 종속변수의 분포가 편중(censored)되어 있을때, 즉 종속변수가 상위나 하위 경계선 혹은 양 단에 집락되어 있는 값을 가질때, 측정식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Tobin, 1958). 많은 표본이 시간절약 서비스에 전혀 지출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종속변수의 값이 0), tobit 분석이 적합한 통계방법으로 제공되었다.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의 결합된 효과로 인해 발생한 시장대체재 지출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각 가족유형별 시장대체재 지출이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

$$E(Y_p Y_{mp}^* > 0) = b'X_p + \sigma \frac{\phi(Z_p)}{\Phi(Z_p)}$$

여기서 아래쓰인 p는 p형의 가족유형을 나타내며(p=1이면 비취업 편모가족, 2이면 비취업 기혼모가족, 3이면 취업 기혼모가족, 그리고 4이면 기혼모가족),  $\phi(z)$ 는 확률밀도함수,  $\Phi(z)$ 는 적률 분포함수,  $\sigma$ 는  $Y^*$ 의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이때

$$Z_p = \frac{b'X_p - \mu}{\sigma}$$

여기서  $\mu$ 는  $Y^*$ 의 평균이다(Maddala, 1983).

## IV. 결과 및 논의

###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각 가족유형별 선정된 표본의 특성이 표 1에 요약되어져 있다. 총표본 크기는 2,126가족이고, 그 중 334 표본은 편모가족이고 1,792 표본은 기혼모가족이다. 전체 표본모 중 15.7%가 편모였고, 편모 중 71.3%가 취업한 상태였다. 기혼모가족 중에서 94.9%의 부가 취업하였다. 비취업 기혼모가족의 부(\$14,14)는 취업 기혼모가족의 부(\$13,71)보다 약간 더 높은 임금율을 가졌고, 취업편모(\$7.76)는 취업기혼모(\$8.14)보다 약간 낮은 임금율을 가지고 있다.

총표본의 연평균가족 비근로소득은 \$2,230였다. 가족 불로소득은 가족구성에 따라 변하는데, 즉 기혼모가족(\$2,225)보다 편모가족(\$4,891)의 불로소득이 훨씬 더 높았다. 비취업 편모가족(7,017)은 취업 편모가족(\$2,765)이나 비취업 기혼모가족(\$2,946), 혹은 취업 기혼모가족(\$1,503)보다 훨씬 더 높은 불로소득을 가졌다.

총표본의 연평균 납세전 가족소득은 \$37,256였다. 편모가족에 비해 기혼모가족의 연평균소득은 거의 세배에 달한다. 특히, 취업 기혼모가족의 연평균소득은 비취업편모가족의 6배 이상이었고, 취업 편모가족의 2.5배, 비취업 기혼모가족의 2.1배였다.

총표본의 평균 가족크기는 3.8명이었다. 가족크기는 가족유형에 따라 변했는데, 비취업 기혼모가족이 가장 크고(4.1), 취업 편모가족이 가장 작았다(2.9). 총표본의 평균 교육연수는 12.8년이였다. 비취업 편모가족(10.9)의 교육연수는 취업 편모가족(12.8)이나 비취업 기혼모가족(12.2), 혹은 취업 기혼모가족(13.2)보다 더 낮았다. 모의 평균 연령은 37세였다. 4개 가족유형 중 비취업 편모가 가장 어렸고(33.4), 비취업 기혼모가 가장 나이가 많았다(38.0).

총표본 중 2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였다. 비취업 편모가족 중 약 20

표 1. 표본가족의 일반적 특성

특 성	총표본	편 모		기 혼 모	
		비취업	취업	비취업	취업
표본크기 (총표본의 %)	2,126 (100.0)	96 (4.5)	238 (11.2)	496 (23.3)	1,296 (61.0)
평 균(\$)					
부의 임금율 <sup>a</sup>	13.83	0.00	0.00	14.14	13.71
모의 임금율 <sup>b</sup>	8.08	0.00	7.76	0.00	8.14
가족 불로소득(\$)	2,230	7,017	2,765	2,946	1,503
납세전 연가족소득(\$)	37,256	7,242	17,357	35,843	43,765
가족크기	3.8	3.4	2.9	4.1	3.9
모의 교육(연수)	12.8	10.9	12.8	12.2	13.2
모의 연령(연수)	37.0	33.4	36.0	38.0	37.1
평 균(\$)					
부의 취업 <sup>c</sup> :					
비취업	5.1	—	—	6.3	4.0
취업	94.9	—	—	93.8	96.0
모의 취업:					
비취업	27.8	100.0	0.0	100.0	0.0
취업	72.2	0.0	100.0	0.0	100.0
어린 자녀의 유무:					
없음	82.3	80.2	95.4	75.8	82.5
있음	17.7	19.8	4.6	24.2	17.5
모의 인종:					
비백인계	15.0	54.2	29.8	11.7	10.6
백인계	85.0	45.8	70.2	88.3	89.4
주택소유:					
저당잡힌 주택소유	60.0	5.2	32.8	59.5	69.3
저당없는 주택소유	9.6	4.2	5.5	12.5	9.6
임대주택	30.4	90.6	61.8	28.0	21.1

<sup>a</sup>취업부만 대상으로.

<sup>b</sup>취업모만 대상으로.

<sup>c</sup>기혼모만 대상으로

%, 취업 편모가족의 4.6%, 비취업 기혼모가족의 24.2% 및 취업 기혼모가족의 17.5%가 2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표본내 모의 대다수가 백이었다(85%). 편모가족은 기혼모가족보다 유색인종인 경향이 있었다. 비취업 편모의 약 54%의 취업 편모의 30%가 유색인종이었다. 반면에 비취업 기혼모가족과 취업 기혼모가족내 모의 12%만이 유색인종이었다.

총표본 중 9.6%가 저당없이 집을 소유했고, 60%가 저당잡혀있는 상태에서 집을 소유했으며, 30.4%는 집을 빌려쓰고 있었다. 비취업 편모가족의

1/10 이하와 취업 편모가족의 2/5 이하가 주택소유자인 반면에, 취업 기혼모가족의 약 4/5와 비취업 기혼모가족의 약 3/4가 주택소유자였다.

## 2. 시간절약 서비스에 대한 연평균지출

총표본 가족은 총서비스에 평균 \$1,951을 지출하였다. 각기 다른 4개의 가족유형간 지출차이의 정도는 지출범주에 따라 다르다. 취업 기혼모가족은 비취업 기혼모가족, 취업 편모가족 및 비취업 편모가족보다 시간절약 서비스에 평균적으로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표 2).

표 2. 표본가족의 시장서비스에 대한 연지출

지출범주	총표본 (N=2,126)	편 모		기 혼 모		
		비취업 (n=96)	취업 (n=238)	비취업 (n=496)	취업 (n=1,296)	
		평 균( \$ )				
외식	1,257	201	703	1,121	1,488	
의복관리	99	70	95	93	105	
자녀관리	440	33	371	138	598	
가내관리	156	25	67	167	177	
총서비스	1,951	329	1,236	1,518	2,368	

표 3.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로 인한 서비스지출

지출범주		외 식	의복관리	자녀관리	가내관리	총서비스
가족유형	취업					
	편모					
비취업	총지출( \$ )	1,356	107	1,441	459	2,039
	차이( % ) a	117	120	146	118	113
취업	총지출( \$ )	1,221	94	1,074	518	1,715
	차이( % ) a	95	105	106	109	133
기혼모	총지출( \$ )	1,292	84	1,208	350	2,138
	차이( % ) a	119	111	94	123	90
비취업	총지출( \$ )	1,159	89	986	389	1,797
	차이( % ) a	100	100	100	100	100

a 비취업 기혼모가족의 지출에 대한 백분율로서 표현된 각 집단의 지출

각기 다른 4개의 가족유형간 지출차이의 정도는 지출범주에 따라 다르다. 4개 가족유형간 연평균 의복관리 지출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취업 기혼모가족의 연평균 의복서비스 지출은 비취업 편모가족, 취업 편모가족, 비취업 기혼모가족 각각에 대해 1.5배, 1.1배, 1.1배였다.

취업 기혼모가족의 외식, 가내서비스 및 총서비스에 대한 연평균 지출은 비취업 편모가족의 7배, 취업 편모가족의 2배, 비취업 기혼모가족의 1/2에 해당되었다. 자녀관리서비스에 대한 연평균 지출은 4개 가족유형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취업 기혼모가족은 비취업 편모가족보다 18배, 비취업 기혼모가족보다 4.3배, 취업 편모가족보다 1.6배 이상 자녀관리 서비스에 지출을 많이 했다.

### 3.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가 서비스 지출에 미친 영향의 측정

취업 편모가족, 비취업 편모가족, 취업 기혼모가족 및 비취업 기혼모가족에 대한 추정된 시간

절약 서비스 지출액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sup>2)</sup>. 4개의 가족유형간 비교를 보여주기 위해서, 측정된 지출에 있어 비취업 기혼모가족으로부터 %차이가 취업 편모가족, 비취업 편모가족, 취업 기혼모가족 각각에 대해 계산되어졌다.

비취업 기혼모가족과 비교해보면, 취업 편모가족의 총서비스에 대한 측정된 지출은 \$242가 더 많았다. 총서비스에 대한 측정된 지출은 취업 기혼모가족이 비취업 기혼모가족보다 \$342가 더 높았으나 비취업 편모가족보다는 \$82가 더 낮았다. 즉, 총서비스에 대한 측정된 지출에 있어서의 %차이는 취업 기혼모가족(19%)이 비취업 편모가족(13%이나 취업 기혼모가족(5%)보다 더 많

2) 표 2에 제시된 서비스 지출액은 실제 본 연구의 표본들이 보고한 액수인 반면에(따라서 네 유형의 표본이 각기 다른 조건하에 있다), 표 3에 제시된 서비스 지출액은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 이외에 네 유형의 표본이 갖는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되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가 순수히 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액수로 측정된 것이다.



았다.

외식과 자녀관리의 경우, 비취업 기혼모가족으로부터의 %차이는 취업 편모가족(각각 17%, 46%)이 비취업 편모가족(각각 5%, 9%)이나 취업 기혼모가족(각각 11%, 20%)보다 더 컸다. 의복서비스의 경우, 모의 결혼 및 취업 상태의 효과는 취업 편모가족의 지출을 20%, 비취업 편모가족의 지출을 6% 증가시켰으며, 취업 기혼모가족의 지출을 6% 감소시켰다.

가내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비취업 기혼모가족에 비해 취업 편모가족과 비취업 편모가족은 각각 평균 \$70와 \$219를 더 많이 지출하였으며 취업 기혼모가족은 \$39 적게 지출하였다. 즉 가내서비스에 대한 측정된 지출에 있어서의 %차이는 비취업 편모가족(33%)이 취업 편모가족(18%)이나 취업 기혼모가족(10%)보다 더 컸다.

일반적으로 연구결과는 측정된 지출에 있어 비취업 기혼모가족으로부터의 %차이는 취업 편모가족이 비취업 편모가족이나 취업 기혼모가족보다 더 높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 4. 사회경제적 변수 및 기타변수와 서비스 지출간의 관계

사회경제적 변수 및 기타변수와 서비스 지출간의 관계를 조사한 tobit 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른 여러 사회경제적 변수와 더불어 모의 결혼상태와 취업상태 개개 변수의 유의성도 검증되어 모의 결혼상태 및 취업상태와 서비스 지출간 관계에 대해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Tobit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편모상태는 가내서비스 지출에만 정적으로 관계되어 있었다. 즉 편모가족은 기혼모 가족보다 가내관리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가능한 가지 설명은 가내 서비스 지출은 다른 지출범주와는 달리 정원손질이나 잔디깎기 등과 같은 전통적으로 남자의 작업이라 여겨지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부재한 편모가족은 이런 유형의 가사노동을 유급 노동력으로 대체시키는 경향이라는 것이다.

모의 취업은 외식, 자녀관리, 그리고 총서비스

지출에 정적으로 관계되어 있었고 가내관리 지출에는 부적으로 관계되어 있었다. 이는 취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요 가사노동 책임을 모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사 준비나 자녀 양육에 대한 요구는 특정 시기에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취업모는 비취업모보다 외식과 자녀관리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향이라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모의 취업과 가내 서비스 지출사이의 부적 상관관계는 모와 외식 및 자녀관리 서비스 지출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설명되어질 수 있다. 만약 취업모가 비취업모보다 심각한 시간부족 문제를 간다면, 시장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하고자 하는 강한 필요성을 갖게되는데, 취업모는 식사준비나 자녀관리에서보다는 가내작업을 수행하는데에서 더 많은 재량을 발휘하여 수행시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예산내에서 과외의 금전을 외식과 자녀관리 서비스에 지출하기 위해서는 가내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모의 결혼상태와 취업상태간 상호작용 및 모의 결혼상태와 가족소득간 상호작용변수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 지출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또한 부의 취업유무와 시장서비스 지출간에도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부의 취업유무가 유의하지 않음은 전통적으로 가사노동의 책임이 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가 이중부담으로 인한 시간부족을 겪는 경우는 드물며, 따라서 부의 취업유무와 서비스 지출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과 일치한다(Blau & Ferber, 1986; Peskin, 1982).

부의 임금율은 주요 설명변수로 입증되지 않았다. 부의 임금율은 가내서비스 지출에만 관련되어 있었다. 고임금을 받는 부의 가족은 저임금을 받는 부의 가족보다 가내관리 서비스에 더 적게 지출한다. 부의 임금율과 외식, 의복관리, 자녀관리, 그리고 총서비스에 대한 지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의 임금율이 대부분의 서비스지출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Dardis와 그의 동료들(1989)의 결과를 지지해주지 못했다.

모의 임금율이 서비스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대와는 대조적으로, 모의 임금율과 시간절약 시장대체 지출간에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발견되었다. 가족의 불로소득과 가내관리 서비스 지출간에 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불로

표 4. 사회경제적 변수 및 기타 변수와 서비스 지출간의 관계에 대한 tobit 분석의 결과

가속유형	지출범주	외 식	의복관리	자녀관리	가내관리	총서비스
모의 결혼상태		8.17 (.001)	19.67 (.35)	715.81 (1.51)	381.81** (3.70)	254.28 (.63)
모의 취업		173.71* (6.20)	-10.21 (.92)	960.41** (51.89)	-139.54** (.001)	452.76*** (.0007)
결혼상태*		-2.18 (.0001)	32.58 (1.36)	348.62 (.82)	-5.53 (.001)	-7.26 (.0007)
취업상태		.002 (.07)	-.0003 (.07)	-.008 (.39)	-.007 (1.37)	-.01 (.91)
결혼상태*소득		.002 (.07)	-.0003 (.07)	-.008 (.39)	-.007 (1.37)	-.01 (.91)
부의 취업		187.30 (1.38)	17.17 (.46)	748.33 (2.33)	104.64 (.48)	9.91 (.002)
부의 임금율		-.58 (.08)	-.05 (.02)	-2.05 (.22)	-6.83* (3.74)	-4.26 (1.82)
모의 임금율		-.76 (.80)	.06 (.28)	.33 (.07)	-.63 (.96)	-.16 (.02)
불로소득		.002 (.11)	-.0009 (1.49)	-.01 (.94)	-.01*** (6.87)	.001 (.03)
총가족소득		.02*** (220.56)	.003*** (215.89)	.02*** (35.63)	.02*** (111.09)	.04*** (348.20)
가족크기		-3.68 (.02)	-7.04 (2.59)	61.19 (1.30)	-1.86 (.005)	20.86 (.24)
모의 교육		53.21*** (16.94)	7.03*** (12.99)	198.69*** (65.70)	69.59*** (37.03)	118.90*** (38.10)
모의 연령		7.33 (.09)	-.95 (.06)	87.60 (2.24)	12.59 (.31)	-31.53 (.73)
모의 연령제곱		.18 (.35)	.02 (.19)	-3.19*** (15.49)	-.14 (.27)	.33 (.51)
모의 인종 (=비백인계)		-187.47** (5.17)	61.31*** (24.92)	-239.64 (2.43)	-107.98 (2.10)	-306.20** (6.21)
어린자녀의 존재		-228.82*** (7.42)	5.22 (.17)	530.23*** (16.58)	41.44 (.31)	136.06 (1.18)
주택소유 :						
저당없이		-196.89** (3.85)	-41.16*** (6.85)	-397.59* (3.27)	-180.09* (3.62)	-281.13* (3.52)
주택소유		-139.17* (3.45)	79.19*** (47.87)	-202.60 (2.37)	31.52 (.21)	-124.28 (1.23)
Intercept		-938.91* (3.47)	-157.41** (4.16)	-4583.53*** (16.03)	-2095.28*** (20.85)	-749.46 (1.00)
Log Likelihood		-17805.10	-10875.81	-7215.55	-8189.79	-18888.24

\* p<.10      \*\* p<.05      \*\*\* p<.01

소득과 다른 서비스범주 지출간에 정적인 관계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불로소득과 다른 서비스범주 지출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불로소득이 자녀관리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범주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Dardis와 그의 동료들(1989)의 결과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예상한대로, 가족소득은 모든 서비스 지출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족은 가사노동의 시장대체재에 더 많이 지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Bellante & Foster, 1984; Foster & Mammen, 1991; Strober & Weinberg, 1977)와 일치한다.

모의 연령은 주요 설명변수로 입증되지 않았다. 모의 연령과 모든 서비스 지출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의 연령제곱은 자녀관리 서비스 지출에만 부적적으로 관계되어 있었다.

저당잡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과 비교해볼 때, 저당이 없는 집을 소유한 가족이 유의한 서비스범주에 대해 더 적게 지출했다. 또한 저당잡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보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족은 외식에 지출을 적게하는 반면에 의복관리 서비스에는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

모의 교육연수는 모든 서비스 지출과 관련이 있었다. 모의 교육연수와 외식, 의복관리 서비스, 자녀관리 서비스, 가내관리 서비스, 그리고 총서비스에 대한 지출간에는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Michael의 효율적인 소비가설과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Courtless, 1989; Sexauer, 1979; Wagner & Lucero-Campins, 1988).

유색인종인 모의 가족은 백인모의 가족보다 외식과 총서비스에는 더 많이 지출했고, 의복관리 서비스에는 더 적게 지출했다. 일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Bellante와 Foster(1984), Dardis와 그의 동료들(1989), 그리고 Foster와 Mammen(1991)의 결과와 일치한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어린 자녀가 없는 가족보다 총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는데, 이는 어린 자녀의 존재가 전체적으로 모의

가사시간을 많이 요구하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시간부족을 느낀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은 가사시간을 벌어들일 수 있는 시장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 자녀유무와 개별적인 서비스 지출간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어린 자녀가 없는 가족보다 외식에 더 적게 지출하고 자녀관리 서비스에는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 자녀 유무와 의복관리 서비스 및 가내관리 서비스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했다(Bellante & Foster, 1984; Dardis와 그의 동료들, 1989).

가족크기는 유의한 설명변수가 아니었다. 가족크기는 오직 의복관리 지출과만 관계가 있었다. 가족크기와 의복관리 지출관리 지출간의 부적관계는 Dardis와 그의 동료들(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가 서비스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측정하고 다른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서비스 지출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1988~1989년 미국 소비자지출조사로부터 추출되었으며, 표본은 334 편모가족과 1,792 기혼모가족을 포함한 2,126가족으로 구성되었다. Tobit회귀분석이 (a) 외식, (b) 의복관리, (c) 자녀관리, (d) 가내관리 및 (e) 총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변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취업 기혼모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비취업 기혼모가족으로부터의 %차이는 취업 편모가족이 비취업 편모가족이나 취업 기혼모가족보다 더 높았는데, 이는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가 일반적으로 시장서비스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편모상태는 가내서비스 지출과 정적으로 관계되어 있었으며, 모의 취업은 의복관리 서비스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범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부의 임금율은 가내서비스 지출과만 관계가 있었으며, 가족 불로소득과 가내서비스 지출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총가족소득은 모든 서비스범주에 대한 지출과 정적으로 관계되어 있었다. 또한 자녀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모의 연령제곱과는 부적의 관계가 있었다. 모의 교육수준은 모든 서비스 지출과 모의 연령제곱과는 부적의 관계가 있었다. 모의 교육수준은 모든 서비스 지출과 정적인 관련이 있었다. 유색인종인 모의 가족은 백인모의 가족보다 외식과 총서비스에는 더 많이 지출했고, 의복관리 서비스에는 더 적게 지출했다.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은 어린 자녀가 없는 가족보다 총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나 어린 자녀 유무와 개별적인 서비스 지출간 관계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어린 자녀가 없는 가족보다 외식에 더 적게 지출하고 자녀관리 서비스에는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크기는 유의한 설명변수가 아니었는데 즉, 가족크기는 오직 의복관리 지출에만 관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몇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모의 결혼 및 취업상태가 시장서비스 지출과 연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가족구성과 여성 취업의 변화가 시장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수요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낮은 비용에서 모의 가사노동시간을 대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장대체재의 이용가능성은 다른 유형의 가족들에서보다 취업 편모가족의 복지를 위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더 나아가서, 전체 가족 중 편모가족과 취업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및 마케터들은 서비스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고안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취업 편모가족이 비취업 편모가족보다 외식, 자녀관리 서비스 및 총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화폐와 가사노동시간간에 일종의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취업편모가 비취업편모보다 훨씬 더 적은 가정생산시간을 사용하고, 그 결과 가정생산물을 훨씬 더 적게 생산할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지출수준에 있는 취업 편모가족과 비취업 편모가족은 동일한 소비수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표준예산을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산구성시 자원들간의 대체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키거나 두 가지 가족유형에 대하여 각기 다른 예산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모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서비스 지출간에 존재하는 정적인 관계로부터 야기된다. 모의 교육수준 증가는 모가 가정생산에 투입한 시간의 상실 가치를 높임으로써, 높은 교육수준의 모는 낮은 교육수준의 모보다 자신의 가사노동 시간을 유급 서비스로 더 많이 대체시킨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결국 모의 시간가치가 서비스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모의 시장시간가치를 나타내는 임금율과 서비스 지출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의 논리와는 모순이 되는 점으로서, 이는 임금율 측정방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다시말하면, 본 연구에서는 임금율이 전업체 취업모와 시간제 취업모를 총괄하여 측정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시간제 취업모가 비정규적이고 전업체 취업모보다 훨씬 더 낮은 임금율을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이질적인 두 집단을 하나의 취업집단으로 처리하여 측정된 임금율은 모의 시장시간 가치를 정확히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모의 임금율과 서비스 지출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는 잘못된 결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모의 취업상태를 보다 세분화하여 각 범부별로 정확한 시장시간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임금율 측정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Arndt, J.(1979). Family life cycle as a determinant

- of size and composition of household expenditures. In W.S. Wilkie(E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 Volumn 6(pp. 128-148). Ann Arbor, MI :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2) Bellante, D. Foster, A.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utre on servic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 3) Blau, F.D. & Ferber, M.A.(1986). The economics of women, men, and work.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4) Courtless, J.C.(1989).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apparel services. *Family Economics Review*, 10-14.
  - 5) Dardis, R., Soberon-Ferrer H. & Tsay, Y.Y.(1989). Determinants of household expenditures for services. In M.Carsky(Ed.). *Proceedings of the 3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pp. 114-120).
  - 6) DeWeese, G.(1989). Female-headed households : Impact of family structure in household expenditures for clothing. In M. Carsky(Ed.). *Proceedings of the 35th Annual Conference of the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pp.210-215). Baltimore, MD :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 7) Fpster, A.C. & Mammen, S.(1991). Impact of wife's employment on service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5, 9-18.
  - 8) Horton, S.W.(1983). Expenditure behavior of female-headed and two-parent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 9) Johar, R. & Sandhu, H.(1982). Consumption pattern in Punjab. *India Economic Journal* 29, 69-85.
  - 10) Maddala, G.S.(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ics. New YorkYCambridge University Press.
  - 11) Nickol, S.Y. & Fox, K.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97-208.
  - 12) Peskin, J.(1982). Measuring household production for the GNP. *Family Economics Review*, 16-25.
  - 13) Redman, B.J.(1980). The impact of women's time allocation on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2, 234-237.
  - 14) Sanik, M.M. & Maudlin, T.(1986). Single versus two parent families : A comparison of mothers' time. *Family Relations* 35, 53-56.
  - 15) Schwenk, F.N.(1989). Households with expenditures for housekeeping services, including child care. *Family Economics Review*, 15-20.
  - 16) Sexauer, B.(1979). The effect of demographic shifts and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on food-away-from-home expenditur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1, 1046-1057.
  - 17) Strober, M.H. & Weinberg, C.B.(1977).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41-147.
  - 18) Tobin, J.(1958). Estimation of relationships for limited dependent variables. *Econometrica* 26, 24-36.
  - 19)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1991). 1989 Interview survey public use tape documentation.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20) U.S. Bureau of Census(1990).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0(110th ed.).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21) U.S. Bureau of Census(1991). Money income of households, families, and persons in the United States : 1990(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60, No.174).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22) Wagner, J. & Lucero-Campins, L.(1988). Social class : A multivariate analysis of its effect on expenditures for household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373-387.
  - 23) Weiss, R.S.(1984). The impact of marital dissolution on income and consumer in single-parent househol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5-127.
  - 24) Yang, S.J. & Magrabi, F.M.(1989H.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8, 133-147.